

스포츠는 내 친구

10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동아 공동 기획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와 스포츠동아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스포츠기자단'을 운영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 스포츠기자단은 다양한 학교 스포츠 활동 및 스포츠 관련 소식을 소개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체육 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학생 스포츠기자단'이 취재한 기사는 선별해 매월 1회, 다섯차례에 걸쳐 지면을 통해 게재될 예정입니다.

“잡고 죽자 생각으로 막판 스피트 경기 후 영상보니 너무 뿌듯했죠”

인천체고 안서현, 대통령배 자유형 200m 금



제40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서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인천체고 안서현 양.

졸업을 앞둔 안서현은 개인전 금, 은메달과 단체전은 메달을 수확해 눈길을 끌었다. 안서현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했나?
“기록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뛰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기록을 크게 줄인 비결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합 때 최고기록이 나오고 2년 동안 기록을 줄이지 못해 불안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코로나 사태로 운동을 제대로 못해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코치님들께서 바로잡아주시고, 스스로도 운동시간에는 죽기 살기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단점들을 보완했다.”

-단체전까지 총 3개 종목에 다 뛰었는데 힘들진 않았나?
“단체전은 경합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물론 개인전이 있는 날에는 단체전이 조금 버겁게 느껴져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막상 뛰고 나니깐 후배나 동기들과 추억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형 200m 마지막 50m 구단에서 역전승을 했을 때 기분은?
“나는 왼쪽 호흡이어서 마지막 50m에서 먼저 가고 있는 선수가 보였다. 그렇게 큰 격차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잡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스피드를 올렸던 것 같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방식, 몸 푸는 시간 등 바뀐 점이 많다고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선 없이 오후에 바로 결승을 뛰어야 하는 게 처음에는 크게 불편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몸을 풀고 오후에 시합을 뛰었고, 또 다른 날은 마지막 시간에 몸을 풀고 시합을 뛰어야 해서 좀 힘들었다.”

-대회 준비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은?
“체중관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살짝 어렵고 두려웠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시합 출발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취소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운동에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다.”

-다음 대회 목표는?
“이번 자유형 200m에서 2분03초77이 나왔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단점인 턴 이후의 부분을 더 훈련해 2분2초대 후반에서 2분3초대 초반에 진입하고 싶다.”

정다빈 학생기자·인천체고 2



뉴스포츠 '플래그 풋볼'이 학교체육의 새로운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한·일 플래그 풋볼 경기 장면. 네이버 사진캡처

포리잡기와 풋볼을 합친 뉴스포츠 장충고에 부는 '플래그 풋볼' 바람

선수 막아서는건 되지만 태클은 금지 '안전'

'플래그 풋볼'을 아시나?
학교체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스포츠 종목을 벗어나 새로운 스포츠를 즐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장충고에선 생소한 스포츠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뉴스포츠인 '플래그 풋볼'이 그것이다. 뉴스포츠는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에서 채택하지 않은 종목으로,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을 결합하거나 변형해 만든 새로운 스포츠다. 대표적으로는 티볼, 추크볼, 킨볼이 있다. 뉴스포츠는 경쟁이 주된 기존 스포츠와 달리 협동심을 유발하며,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또 신체활동 증진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

플래그 풋볼은 공을 가진 선수가 허리에 매단 가늘고 긴 깃발을 상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대의 엔드존에 들어가는 게임이다. 포리잡기와 풋볼이 합쳐진 뉴스포츠다. 과격하고 어려운 풋볼을 포리잡기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플래그 풋볼은 풋볼을 변형한 것으로 럭비공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 풋볼의 과격한 몸싸움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변형했다. 과격한 몸싸움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를 막아서는 것은 허용되지만 태클은 하지 못한다. 플래그 풋볼에 참여한 한 학생들은 "과격하고 어려운 풋볼을 포리잡기처럼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안전하게 게임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전략을 많이 쓰는 게임이어서 처음에 많이 어려웠다"고 평했다.

장건우 학생기자·장충고 2



학교체육 활동은 건강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최근 서울 영남중에서 열린 배구리그 남자 결승전. 사진 | 서예민 학생기자

“함께 운동하니 더 친해졌어요” 영남중 반대항 배구리그 주목

코로나19 방역지침 지키며 건강한 경쟁

코로나시대 짜증을 한방에 날려준 학교체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 영남중학교에서 배구리그가 열렸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 당연했다. 학교 측은 비디오통신 커뮤니케이션 '줌(zoom)'으로 시청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배구리그는 남녀로 나뉘어 반대항전이었다. 1세트에는 남자 9명, 2세트에는 여자 9명이 참여했다. 3세트까지 갈 경우 남자 6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된 경기가 이어졌다. 학생배구에선 일반배구의 규칙과는 다르게 남자는 1바운드, 여자는 2바운드를 허용한다. 경기 진행은 선생님이 아닌 '리그지원단' 소속 학생들이 심판, 점수판, 뉘정리 등을 도맡았다. 반끼리 경쟁이다 보니 학생들의 열정과 승부욕이 코로나19를 잡아먹을 것처럼 불타올랐다.

우승은 3학년 4반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3학년 2반에 돌아갔다. 이번 배구리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3학년 2반 몇몇 여학생들은 "원래 체육을 열심히 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은 처음이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는 시간이 적어서 친구들과 어색했는데, 배구 연습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포츠활동은 건강뿐 아니라 주변인들과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영남중 김현수 체육교사는 "다양한 종목 체험과 시합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즐거움, 페어플레이, 인내심, 자신감 등 다양한 가치들을 직접 느끼고 깨달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에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의 미래에 스포츠를 통해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서예민 학생기자·영남중 3



TV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최근 여학생들 사이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골 때리는 그녀들이 바꾼 학교체육 요즘 여학생은 피구 대신 축구해요

시청률 7.2% 인기...동호회 가입 문의도 증가

"피구공 대신 축구공을 달라!"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축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축구 시청과 응원을 넘어 실제 경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여학생 축구' 열기의 일등공신은 TV프로 여자축구에 능 '골 때리는 그녀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 7.2%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출연한 방송인들은 축구를 예능 범주에서 벗어나 '축구선수'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력으로 호응을 얻었다. 슈팅 한 번에 가슴 졸이고 첫 승에 눈물 흘리는 진심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출연자들은 "이런 걸 왜 남자들만 했을까. 왜 예전엔 축구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을까"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여성들이 축구에 거리감이 있는 것은 축구를 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체육시간의 경우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로 나뉘어 수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골 때리는 그녀들'의 열풍은 곧바로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여자축구 동호회'에 가입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어린 여학생들 또한 축구를 향한 관심을 숨기지 않는다. '피구' 대신 '축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피구공만 달랑 건네주는 '여학생용 축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여학생들은 '피구'나 '휴식'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원한다. 지금, 우리는 '골 때리는 소녀들'을 꿈꾼다.

안세현 학생기자·성명외고 2



2020 도쿄올림픽 탁구 신유빈(왼쪽)과 룩셈부르크 니샤렌의 경기 장면. 신유빈 등 Z세대가 한국스포츠의 핵으로 떠올랐다. 스포츠동아DB

양궁 김제덕·탁구 신유빈 등 올림픽 Z세대 돌풍 시선집중

열다섯살 수영 이은지도 당당하게 가능성 인정

2020도쿄올림픽 한국선수단의 Z세대(1995년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 청소년) 선수들에게 시선을 쏠리고 있다.

양궁 김제덕(17·경북일고), 탁구 신유빈(17·대한항공), 수영 이은지(15·오륜중), 황선우(18·서울체고) 등이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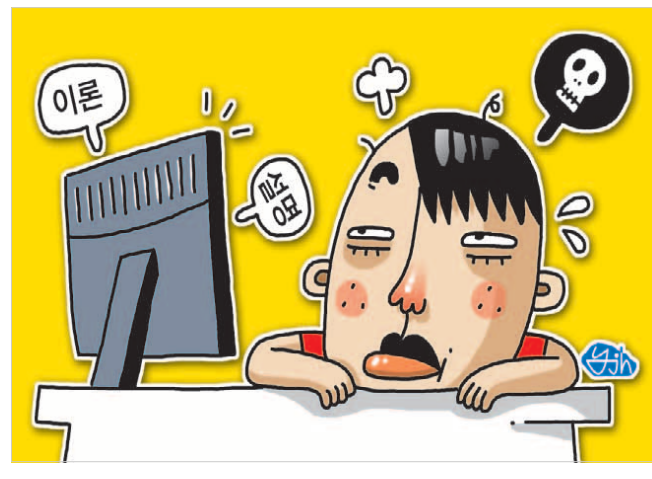
양궁 혼성파 남자 단체전 2관왕 김제덕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활을 잡았다. TV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도 출연하며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다. 경기 도중 "코리아 파이팅"이라 외치며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신유빈 또한 어린 나이에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해 잘 알려진 체육영재다. 역대 탁구 최연소 국가대표로 현정화의 종전 기록을 깼다. 탁구에 전념하기 위해 고교 진학 대신 대한항공 탁구단에 입단했다. 그는 탁구 최고령 선수인 중국 출신의 룩셈부르크 니샤렌(58)과 단식 2라운드에서 불어 승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국 선수단 중 최연소인 수영 이은지도 주목해야 할 유망주다. 열다섯 살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여자 배영 100m·200m에 출전,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져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지만 한국 수영을 책임질 차세대 주자로 손색이 없었다.

백혜은 학생기자·덕성여고 1



코로나19 시대 줄어든 체육시간 1시간 연습하고 실기평가한다고?

들쭉날쭉한 평가방식에 학생들 큰 불만

코로나19시대, 학교 체육과목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실기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평가방식에 들쭉날쭉해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경우 올 1학기는 격주로 등교했다. 3학년은 전면 등교수업, 1·2학년은 등교·원격수업을 번갈아 했다. 수행과 체육 실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 수업도 이런 위주의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교 2학년인 김 모 군은 "운동 시간이 줄어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이 모 군(고 2)은 "온라인 체육 수업은 따분한 내용들이 많아 딱 지을 하게 된다"며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실기평가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졌다. 학생들은 평가 종목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경기에 투입되고 평가를 받았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실제 한 고교에서 진행된 농구 종목을 보면 연습시간 1시간, 평가시간 1시간이었다. 계획대로였다면 적어도 3시간이었어야 할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평가 대상 선정도 들쭉날쭉했다. 한 고교의 '스포츠 생활' 수업에서는 교사가 지정한 1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직접 평가 종목을 선정한다. 하지만 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했던 종목을 갑자기 없애버리기도 했다.

김진천 학생기자·가운고 2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한 대구고 경기 모습.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대구고는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스포츠동아DB

끝까지 그라운드 남아 우승팀 축하 황금사자기 준우승팀 대구고 화제

패색 짙은 9회에도 최선... '스포츠맨십' 빛나

우승 못지않은 '아름다운 준우승'.
고교야구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팀의 '스포츠맨십'이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다. 주인공은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한 대구고다.

대구고는 지난 6월 1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강릉고에 4-13으로 져 준우승했다.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대구고가 수비실책으로 무너지면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구고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9회초 선두타자가 행운의 안타로 출루한 뒤 후속 타자들의 연이은 홈런으로 점수차를 좁혔다. 경기 내내 뜨거웠던 대구고의 덕아웃 분위기가 또한 9회초 절정을 이뤘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타석의 타자들을 응원했다. 패색이 짙어진 2아웃 상황에서도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덕아웃 분위기만큼은 우승팀 부럽지 않았다.

시상식 때도 대구고는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다. 준우승팀이 그라운드를 지키는 건 이례적이다. 대구고는 끝까지 그라운드에 남아 강릉고의 우승을 축하해줬다. 선수들은 승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다. 시상식을 지켜본 모든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든 훈훈한 장면이었다.

대구고 손경호 감독은 "승자를 축하해 주는 것은 스포츠맨십의 기본"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100%의 전력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봉황대기와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며 올 하반기 남은 대회들을 기억했다.

홍서연 학생기자·화홍중 2